

##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오늘은 눅 8:1 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분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 : 1 이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 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마태 복음에는 37 회, 마가에서 14 회, 누가에서 32 회가 나오며 바울 서신에서는 8 번이 나옵니다. 이 밖에 아버지의 나라, 그의 나라 등으로 표시된 구절은 너무 많습니다. 이처럼 많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 1.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선교 초기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갈릴리와 유대 전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러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에 대해 찾아 보십시오.

마태복음 4 : 2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한 구절 더 찾아 보십시오.

누가복음 8 : 1 이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 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도 하늘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 : 1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누가복음 9 : 2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 : 8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8 : 30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사도행전 28 : 31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당신 자신이 직접 전하셨으며, 사도들에게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들의 하루 하루의 생활과 관계가 깊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 II. 누가 메시아인가?

예수님은 당신의 호칭을 메시아라는 말보다도 인자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냐?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혼동거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이까?” 질문을 하였고,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0 : 24 에서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케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면서 분명한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마 16:20)’고 명백하게 말하심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마태복음 16 : 20 이에 제자들을警戒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 : 24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케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이면서도 왜 그것을 생전에 들어내놓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이유를 Messianic Secret-메시아적 비밀-이라고 학자들은 나중에 용어를 만들어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간단히 역사를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왕 때 창세기 15 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후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왕국은 기원전 8 세기에 망했고,  
남왕국인 유대만 남아 있다가 기원전 6 세기에 남왕국도 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까지 약 600 년 동안 유대민족이 겪은 고난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주권을 잃어 버리고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왕처럼 강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 부터 독립을  
쟁취해 주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들어  
내놓고 말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때가 왔다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여  
로마로 부터 독립하려고 군사행동을 일으킬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이와같이 대중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선언을 하지 못하고  
메시아 대신 자신을 “인자”라는 말로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깔며,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한 것도 바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유대인들은 폭도로  
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아우성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공적으로 선언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입니다.

사도행전 5 : 42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18 : 5 실라와 디모테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 III.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

초대 교회 때부터 근대에 까지 별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이르러 자유 주의 신학의 영향입니다.

자유 주의 신학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특성을 무시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복지 국가를 만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전혀 성서적이 아닌 인본 주의적 발상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서 옹립하려던 시도는 벌써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 : 15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늘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군중들이 이런 시도를 할 때 오히려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가려면 회개하지 않으면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영적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하신 설교가 무엇입니까?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입니다.

마가복음 1 : 15    가라사대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 Mark 1:15 (NKJV)

<sup>15</sup> and saying, "The time is fulfilled, and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때(kairos) : 지정한 때

찾고 : fulfill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 : 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며,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나라인 동시에 진리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8 : 37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며, 우리를 진리로 통치하시러 오신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 V. 그러면 메시야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천국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메시야의 나라에  
대한 구약에서의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Fulfillment)되었**고,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Consumation)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현재의 천국이 있고  
성취될 미래의 천국이 있습니다. 현재가 미래와 이어지는 것처럼 현재의 천국이 미래의 천국으로  
이어지며, 현재의 천국은 미래에서 성취가 됩니다.

성경은 신 구약 모두에서 예수님의 초림때 이루어질 천국과 재림 후에 있을 마지막 때의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야의 나라의 증거를 보면,

이사야 35 : 5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35 : 6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될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 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35 : 9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 구절에서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될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 하리니 하는 것은 초림 때 있을 일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하는 것은 **초림때 있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 있을 일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와같이 구약 때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 때 이루어질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성취가 모두 마지막 때를 말하는 ‘그 때’로 표기되어 ‘같은 한 때’ 표기된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마지막 때이지만 유대인들에게 가리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선교로부터 하늘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마가는 말하기를

마가복음 1 : 15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구절에서 때가 찼다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여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시간부터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부터 예언된 메시아인가 아닌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11 : 3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마태복음 11 :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마태복음 11 : 5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초림으로 인해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될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 하리라 ”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때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12 :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But if I cast out demons by the Spirit of God, **then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NASB)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시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선언하십니다. 완료형입니다.

이 흔들리는 세계, 안정이 없이 불안만 증폭되는 이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성령님께 여러분의 전 인격이 굴복함으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